

★ 2020년 5월 23일 월례발표회(동국대학교) ★발표자 : 우성민(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명:『中國歷史』七年級下冊(인민교육출판사, 2018,2쇄)(2016년 교육부검정)

제2단원 요송하금원시기 : 민족관계발전과 사회변화

북송은 오대십국의 분열 국면을 끝냈고, 통치자들은 중앙집권을 강화하였으며, 文을 중시하고 武를 경시하는 치국 정책을 선택했다. 이와 동시에 주변민족이 전후로 요·서하·금 등의 정권을 세워 송조와 병립했다.

북송이 멸망한 후 남송은 강남지역을 차지하였고 금조와 남북 대치의 국면을 형성했다. 양송시기 각 민족 간 더 많은 범위내의 교류와 융합이 있었고, 사회경제가 활발하게 발전했으며, 국내외 무역이 전례없이 번영하였다. 과학문명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고 문학과 예술 성과도 풍성했다. 몽골족이 세운 원조의 강역은 유례없이 넓었고, 각 민족 간 교류는 한층 더 발전하여 동서 교류가 강화되었으며 이후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공고와 발전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제 6과 북송의 정치

○ **송태조의 중앙집권의 강화** :960년 後周의 대장 조광윤은 陳橋驛에서 군사 정변을 일으켰고, 그의 부하들이 그를 황제로 옹립했다.

조광윤은 즉시 후주의 정권을 탈환하여 국호를 송으로 고쳤고 개봉을 동경으로 하여 수도를 삼았는데 이를 역사상 북송이라 한다. 조광윤은 바로 송태조이다.

송조가 건국되었을 때 오대십국의 분열 국면에서 통일의 추세를 나타냈다. 송태조와 그의 후계자는 先南後北의 통일 방침에 따라 남쪽의 할거정권을 지속적으로 소멸시켰고, 중원과 남방지역의 분열 국면을 종결시켰다.

송태조는 통일을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중앙집권을 강화했다. 그는 당말 이래 무장 전권의 적폐를 깊이 알고 있었기에 먼저 금군의 고급장교들의 병권을 제거했고, 군대를 확실하게 장악했다. 송태조는 군대의 이동을 또한 장악했는데 금군 장령으로 하여금 군대를 장악하여 출병할 수 없도록 했다. 그는 또한 항상 군대 장령들을 소집하여 방어 임무를 교대하게 했으며 장령들과 사병들이 지방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여 병사들이 장군을 알지 못하게 했으며, 장군들이 병사들을 독차지 하지 못하게 했다.

중앙에서 송태조는 재상들의 권력이 과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권을 분화시키는 방법을 취하여 재상권을 약화시켰다. 송조의 재상들은 종종 한 사람이 아니라 재상아래

또한 부재상에 해당하는 약간 명을 두었는데, 재상과 공동으로 정사를 논의했다. 또한 여러 종류의 기구를 설립하여 재상의 군정과 재정권을 분할하게 하였다.

지방에서 송태조는 장악을 강화하기 위해 문신들을 파견하여 각지 주현의 장관을 맡게 했으며 계속하여 원래 번진 수하의 용맹한 부하들을 대신하게 하였다. 知州(주의 장관)의 권력이 과대해져 장악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막기위해 3년에 한번 바꾸는 제도를 실시했고, 빈번히 주현 장관을 이동시켰다. 또한 각 州府에 通判을 설치해 知州의 권력을 분화시켰다. 송태조는 또한 절도사가 세금을 거두는 권력을 취소시키도록 명령했고, 각 주에 일부 필요한 지출외에 그 나머지 세금은 모두 중앙에서 장악하게 하였다. 후에 또한 지속적으로 지방에 전문사를 설치하여 지방의 재정을 중앙으로 회수하였다.

상술한 조치를 통해 송조는 중앙집권의 강화는 전례가 없을 정도였고 황권이 대대적으로 보강되었다.

○ **문을 중시하고 무를 경시하는 重文輕武 정책** : 당말 이래 무장들이 제멋대로 전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송태조는 고의로 문신들을 중용하여 군정의 대권을 장악하게 했다. 뒤를 계승한 송태종도 지속적으로 무장을 억제하고 문관의 지위를 높이는 정책을 취하여 문

신들이 병사를 통솔하는 형국이 점차 형성되었다. 당시 문관이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담당하고 있었고 심지어 군대 사무를 주관했는데 지위와 대우는 무장보다 높았다.

무장은 여러 방면의 견제를 받았는데, 병사를 거느리고 전쟁할 때 조차 조정에서 사전에 가르쳐준 “진형도”에 따라 군대를 포진해야 했는데 이는 군대를 통솔하는 데서의 지휘권을 엄중하게 속박하는 것이었다.

송조는 문화교육 사업을 중시하여 과거제를 개혁하고 발전시켰다. 송조에 과거를 통해 벼슬을 시키는 정원을 대폭 늘이고 진사의 지위를 높였는데, 진사는 관직을 우대하였을 뿐 아니라 승진도 빨랐다. 과거제도의 발전은 송조 사회에 심원한 영향을 주었고 전국적으로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문화 역량의 제고가 전체적으로 촉진되었으며 송조의 과거제 발달, 문화 창성, 인재 배치의 문치 국명을 조성하였다.

송조의 重文輕武 정책은 오대십국 시기의 崇武輕文의 기풍을 돌려놓았고 무장의 발호와 군사 정변이 발생하는 상황을 철저히 막아 정권의 공고와 사회의 안정에 유리하였다.

제 7과 요: 서하와 북송의 병립

- **거란족과 탕구트족:** 수당시기 북방에서 유목하던 거란족은 한족과 경제, 문화적 관계가 날로 밀접해졌다. 당조 말년 북방의 한족들은 끊임없이 북쪽 장성을 넘어 중원의 선진적인 생산 기술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피난갔다. 9세기 후기에 거란은 이미 농경과 제철, 방직 등 산업을 가지게 되었을뿐더러 또한 가옥과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10세기 초에 거란족 수령 야율아보기는 거란의 각 부를 통일하여 정권을 세웠는데, 도성을 상경임황부(上京臨潢府)에 두었다. 야율아보기는 건국 후 생산을 발전시키고 문자를 창제시켜 국력은 부단히 신장하였다.

우리나라의 서북지역에서 생활한 탕구트족은 원래 姜族의 한갈래였다. 당대에 감숙성 동부와 섬서 북부 일대에 집중해 있었던 탕구트족은 중원문화와 접촉이 많아지면서 사회생산이 어느정도 발전하였다. 11세기 전기 탕구트족의 수령 元昊 大夏의 황제라 칭하고, 흥경부에 수도를 정하였다. 역사에서 이를 西夏라고 한다.元昊는 당송 제도를 답습하여 관제와 군제, 법률을 정하였다. 동시에 황무지 개간을 권장하여 농목경제를 발전시켰으며 또한 서하문자를 창제하였다.

- **요와 북송의 화친과 전쟁:** 요는 태종때에 燕云 16주를 점령했는데 이때부터 요와 중원왕조의 충돌은 격화되었다. 송태조 말기 북송은 요와 우호관계를 유지했고 서로 사절을 보내기도 했다. 송태종 즉위 후 요를 향해 수 차례 전쟁을 일으켰지만 실패하여 방어 정책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송진종 때에 요군이 대거 송을 공격했는데, 황하강 기슭의 瀧州城 밑까지 공격하여 도성 개봉을 위협하였고 북송 조정은 공포속에 빠지게 되었다. 재상 寇準 황제가 친히 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하여 송진종은 마지못해 瀧州城까지 오게 되었고 송군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어 요군을 물리치게 되었다. 이후 요와 송은 화의를 맺고 요군은 철수하였고, 송은 요에게 매년 세폐를 주었다. 瀧州를 이전엔 瀧淵이라 불렀기에 이 송요 맹약을 “瀧淵의 맹”이라 부른다. 이 후 오래동안 송과 요는 평화적인 국면을 유지했다.

- **서하와 북송의 관계:** 元昊는 황제가 된 후 여러차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북송을 공격했다. 송조는 피동적으로 맞기만 하면서 연속 패배했고, 손실은 막중했다. 서하는 비록 군사적으로는 매번 승리를 거두었지만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돼 인력과 물자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해마다 전쟁을 하여 서하도 매우 큰 손실을 입었고 인민들은 고통속에 빠지게 되었다. 후에 북송과 서하는 강화 담판을 하여 송하는 평화 조약을 맺었다.元昊는 송에 칭신하고 송은 서하에게 세폐를 주었다. 강화를 한 후 송과 서하의 변경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